

학교발전위한 3자협의체 구성

사안별 소위원회 운영, 개선사항논의

수원캠퍼스 총학생회 등록금 회계위원회(이하 등록회)와 학교총과의 등록금협상이 지난 14일 합의로 사실상 마무리되었다. 이는 등록회와 '등록금 15% 회계에 대한 절의'와 '학교발전'에 대한 요구안을 가지고 학교총과의 가진 20여차례의 등록금 협상 끝에 학교가 부응명명의

의 답변서를 이날 제시 함으로써 일단락 되었다. 등록회와 학교간의 결정사항을 보면 우선 학교결구, 교수수 확보로 구성되는 3자협의체로 '대학발전위원회(가칭)'를 구성하고 산하에 '등록금회계위원회', '예산위원회'를 두어 운영하도록 하였다.

이런 협상이 재정상황으로 떠올랐던 채드, 산업대학 경사도로(일명 '합격고개')주변부지 매입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안에 매입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으며, 방학중 경사로 완회를 위한 공사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서울캠퍼스는 14일 학교와 총학생회의 등록금협상 과정에서 합의된 내용(본보 1067호 1면)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등록금 협상은 마무리 되었다. (문서화한 '95학년도 대학발전'을 위한 결정사항' 6면 참조)

인복위, 식당관계자와 질의공방

서울캠퍼스 학생인권복지위원회(이하 인복위)는 지난 12일 복식회관 식당운영자에게 복식회관, 청결상태, 직원들의 복식질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질문서를 보내 이 문제에 대한 답변서를 14일 받았다. 인복위는 질의서에서 같은 이름의 복식회관과 가격이 오름질, 운영시간이 지체되지 않고 있는 점, 식당의 청결, 식원관리책의 불친절, 식당 재고사실 등에 관한 문제점을 질의했다. 식당측은 14일 서면으로 답변서에서 ▲가격이 오른 이유는 재료 구성을 달리 하였기 때문, ▲식당정결에 관해서는 화학조미료를 줄이기 위해 사용한 멸치말을 행주로 사용한 것 ▲제2식당 배식을 5월1일

부터 7시까지 연장하고 5월 18일부터 복식을 판매한다는 점, ▲식당운영자에게 친절 사비시 교육을 실시중이라고 밝혔다. 답변서를 받은 인복위(의화·4) 인복위원은 "가격과 식당장, 장식, 식당 인력과도 관련있는 식원관리책과 직원들의 태도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교내 주차 유료화 추진

교내 구성 통해 7월말 시범 실시

서울캠퍼스는 '교복제 개선위원회'(가칭)를 구성하고 빠른 시일 안에 9월 1일부터 교내 주차를 유료화할 방침이다. 유료주차제는 7월부터 한 달간 시범운영기간을 거친 뒤 9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총무과의 기획안을 따르면 최근 2-3년 동안 교내 주차차량

폭증으로 통행 불편이 심각해짐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있다. 주차유료화 사업에 따른 주요 이 사항을 심의해 줄 '교복제 개선 위원회'는 교수, 직원, 교수협의회대표, 노조대표, 학생대표 각 2명씩 10명 내외로 구성될 예정이다.

공대 문구점 19일 개장
실습구등 전품목 10% 할인 판매
공대문구점이 오는 19일 공과대학관 제1열람실 옆에 개장한다. 이 문구점은 공대학생들의 공약사업으로 진행되었으며 앞으로 공대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과목의 학생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등록과 관련하여 주로 공대 학생들의 특수한 실습기구 중심으로 개장할 문구점은 전품목을 10% 할인가격에 판매할 예정이다.

반목과 질서로 얼룩진 대화 토론

▲유리는 흔히 같은 말을 가지고 서로 처음 들었을때와 나중에 들었을때 그 내용이 확연히 달라지는 경우를 종종 경험하게 된다. 예를 들어 '어느 사람이 갑자기 걸러 물러가린다'라는 말이 있다고 하자, 어느새 이 말은 여러 사람을 거치다 결국엔 "그 사람이 갑자기 걸러 죽었다"는 말로 바뀌어 버리는 경우를 가끔 보게된다. ▲수원캠퍼스 총학생회는 지난 14일 등록금문제와 관련하여 학교총과 다량접촉을 찾아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고 한다. 그간 이 문제에 대해 총학생회의 등록금회계위원회는 각 단과운영위원회에게 '등록금문제 해결 어

나와 정확하게 확정된 안건에 대해서만 발표하러 노력한다"고 해명했다. ▲등록금 협상 타결한 우리는 이번 협상에 있어 3자협의체 구성에 대해 학교측이나 총학이 학내 문제와 관련된 공식적인 대화문로를 개설기로 한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일반 학생들은 총학이 단과단의 대화문로(중요성 협의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의견교환을 원하는 것이다. 서로의 의견이 달라 각각의 협의절차는 내용을 단지 반목과 질서라는 이름으로 '감기에 걸려있어'라는 식으로 말아 나뉘는데 우리는 대화를 느낄 수 없다. (한승오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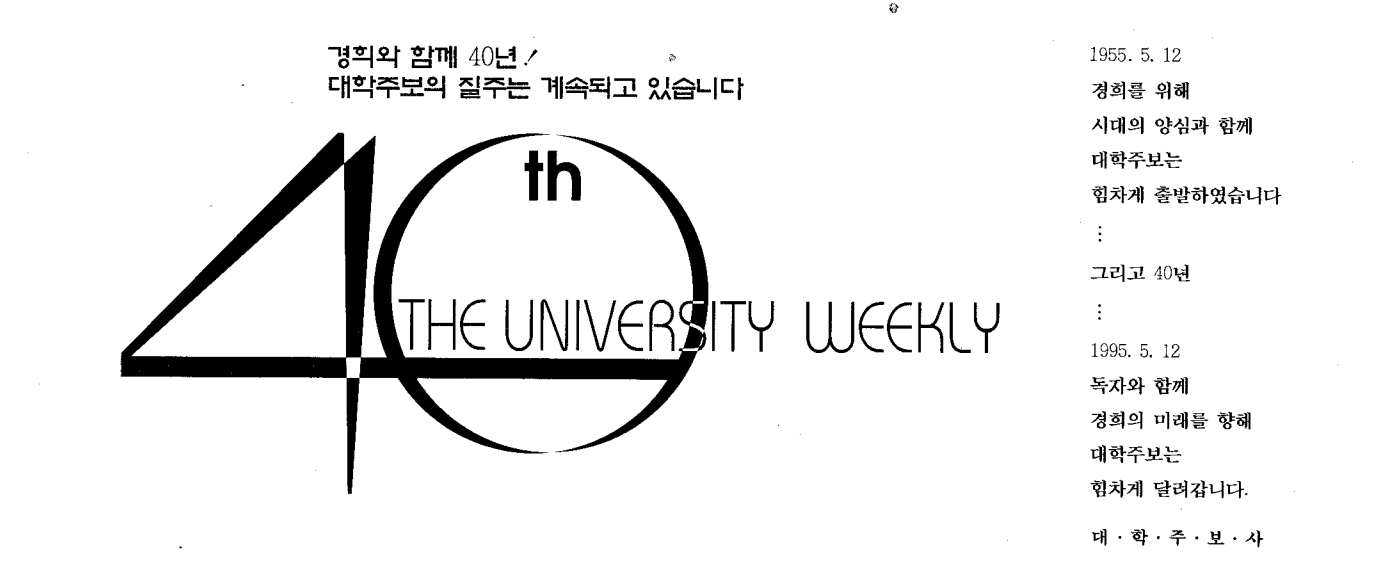
수원, 공중전화부스 13대 설치
수원캠퍼스 총학생회 기적2부는 수원전화국을 상대로 공중전화유치에 성공, 빠르게 내달 중순쯤 설치 가능하게 되었다.

중간고사로 2주간 휴간합니다
다음 제1069호는 5월 8일자로 발간합니다

社 告
講 文 에 현 상 공 모
30일 마감, 형식제한 없이 3편이상
우리신문사는 개교 46주년과 창간 40주년을 기념하여 대학인들의 문예창작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문학창작 능력의 질적 고양을 위해 '제6회 대학주보 문학현상공모'를 실시합니다.

대학주보 창간 40주년 기념광고

경희와 함께 40년!
대학주보의 질주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1955. 5. 12
경희를 위해
시대의 양심과 함께
대학주보는
함께 출발하였습니다
:
그리고 40년
:
1995. 5. 12
독자와 함께
경희의 미래를 향해
대학주보는
함께 달려갑니다.
대·학·주·보·사